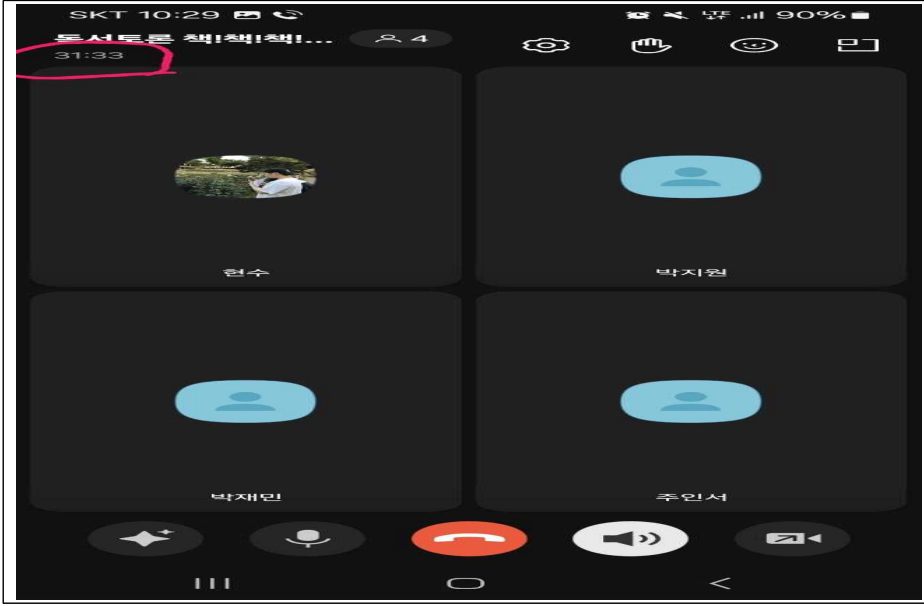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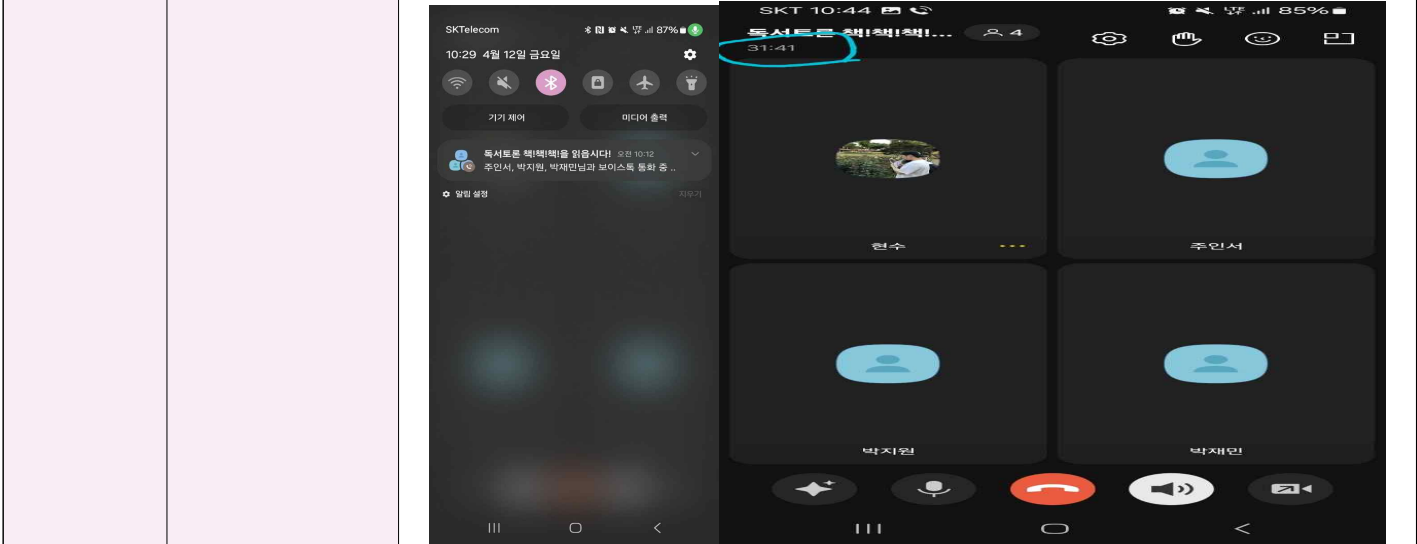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책!책!책!을 읽읍시다!

	일시	4월 5일 10 : 00 장소명: 비대면 카카오톡 보이스톡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현수 2011092	0
		주인서 2231333	0
		박재민 2031006	0
		박지원 2471077	0
	진도	도서명: 보바리 부인	진도페이지: 1 p. ~ 90 p.
1주차	토론 내용	 <p>인상깊은점</p> <p>정현수: 엠마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뒤돌아보며 죽은 아내와의 모든 추억을 회상하는 루올 노인의 모습이 아련해서 인상깊었다.</p> <p>박재민: 고전소설을 별로 안읽어봤는데 인물 묘사가 길다. 인물이 등장할때마다 그 인물의 대해 묘사를 하는 것이 길고 세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상깊었다.</p> <p>주인서: “아내는 그를 사랑했다, 어쨌든”에서 뒤뉘 부인이 죽은 후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때 책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죽음 후에 아내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게 남편은 끝까지 뒤뉘를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짧고 정확하게 표현한 거 같아 인상에 깊었다.</p> <p>박지원: 보바리가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장면도 나오고 결혼식의 장면도 나오는데 묘사가 긴 점도 있지만 그런 묘사 중에 의복에 대해 묘사하는 점이 인상깊었다. 1부가 끝나가는 중에 엠마가 꽃다발을 보다가와 보바리 부인이 떠나갈 때 임신하고 있었다라는 뜬금없는 말이 이야기를 바꿔줄 거 같아 인상깊었다.</p> <p>토론주제: 엠마와 샤를은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애인과 결혼생활에서 서로의 성격차이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p> <p>정현수: 엠마가 불만이 있는 문제를 먼저 이해한 후 최선을 다해 해결해 줄 것이다.</p> <p>박재민: 결혼 생활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입장 차이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라 느껴집니다.</p> <p>주인서: 엠마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먼저 헤아린다면 샤를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여 그 문제에 대해 보다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p> <p>박지원: 둘 사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더 여유있는 쪽이 상대에게 양보하는 편이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p>	

일시	4월 12일 10 : 10 장소명: 카카오 비대면 통화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현수 2011092	0
	주인서 2231333	0
	박재민 2031006	0
	박지원 2471077	0
진도	도서명: 보바리 부인	진도페이지: 90 p. ~ 220 p.



2주차

토론 내용

정현수: 엠마는 수도원의 생활을 모든 걸 바쳐서라도 다시 하고 싶어했는데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 있다. 그런 큰 꿈(욕망)이 현대사회에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감을 낮춰 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주인서:엠마(여자)는 결혼 전 환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서 자기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어 여자의 삶은 기구하다며 비판하고 남자의 삶을 동경한다. 엠마는 임신한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식었는데, 그나마 남자이길 바랬던 아이의 성별이 여자라는 말에 절도했다는 구절이 인상깊었다

박재민: 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배경이 나오는데 장소나 배경에 대한 묘사가 세세하게 길다. 그런 설명으로 인해 장소를 상상할 수 있게 돼서 인상깊었다.

박지원: 2부의 마지막 즈음에 엠마가 하인과 얘기를 하면서 하인이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일했던 사람 얘기를 꺼내는데 그는 사랑을 못하게 됐다가 결혼을 하면서 마음의 병이 찢겨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엠마와 반대인 얘기여서 엠마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욕망을 크게 가져 악영향을 끼칠 경우 우린 어떻게 이겨내야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주인서: 자기가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그 결과가 이뤄지지 않는 자기의식이 있어야한다. 주변인이 하는 말은 신경쓰지 않는다.

정현수: 뒤돌아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후회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야한다. 그 행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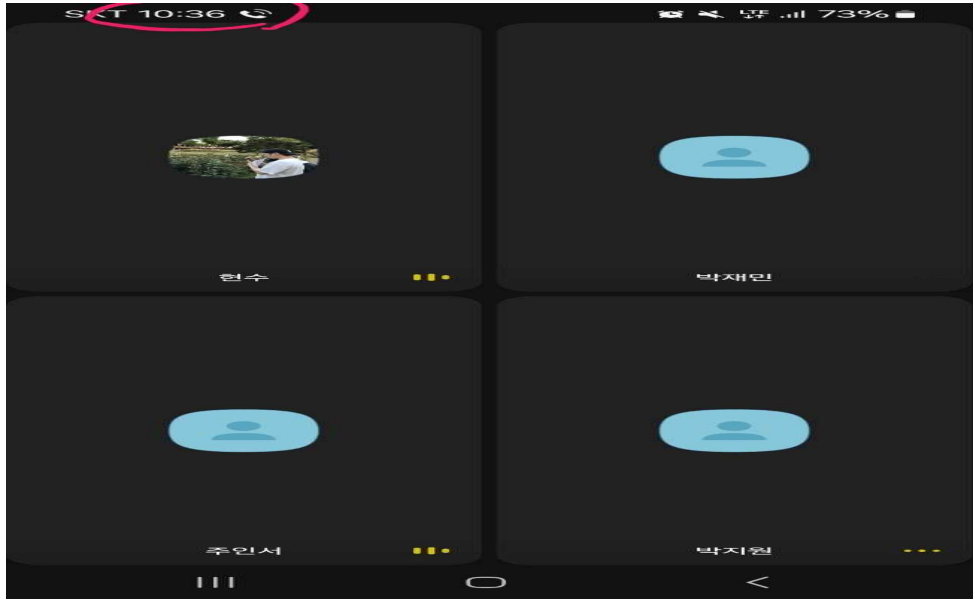
박재민: 꿈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아가야한다. 꿈이 이뤄지지 않았을때도 여태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것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박지원: 꿈이 실패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크게 가라 앉을 거 같다. 쉬는 시간을 얻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	5월 03일 10 : 00 장소명: 카카오 비대면 통화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현수 2011092	○
	주인서 2231333	○
	박재민 2031006	○
	박지원 2471077	○
진도	도서명: 보바리 부인	진도페이지: 220 p. ~ 332 p.

3주차

토론 내용



-인상 깊은 점-

박재민: 엠마가 로돌프에게 버림받고 뮤지컬을 보러 갈 때 레옹을 만나는데 레옹도 공부를 위해 떠났었는데 서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며 2부가 끝나는데 그런 진행이 3부를 기대하게 한다.

정현수: 엠마의 여러 가지 결정을 보면서 한순간의 감정으로 어떤 결정이든 함부로 내리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박지원: 샤를이 이프리트 다리를 수술하는 장면이 인상깊었는데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륜이긴 하지만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나 수술을 하는 장면에서는 자극적인 부분이 많아 인상깊었고 이 장면을 계기로 샤를과 엠마의 관계가 다시 변한다는 점에서 이 장면을 골랐다.

주인서: 샤를이 자신의 딸의 미래를 상상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딸과 엠마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평상시에 아버지가 주인서님을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겹쳐보여 인상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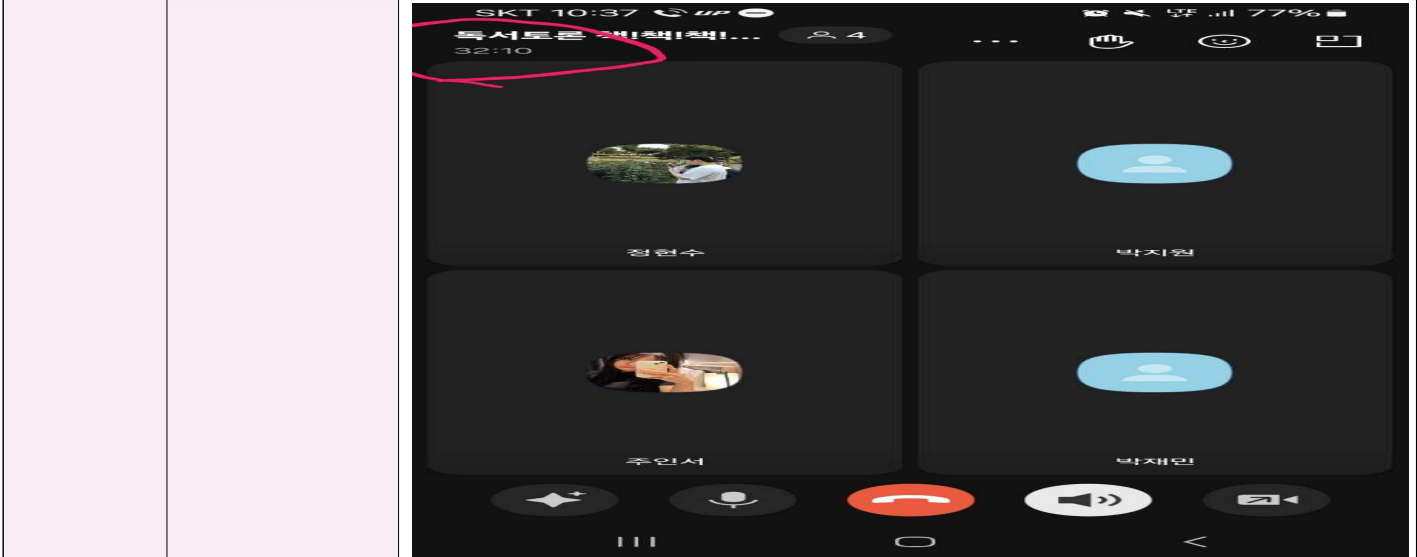
-토론주제, 우리는 일(직종,권위)와 사랑 중에 무엇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가?

박재민: 사랑이 일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동력원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일보다는 사랑이다. 일은 하면서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일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일 수 있지만 사랑을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주인서: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야 그에 따라 오는 금전적 보상이 있으니 사랑에 대해서 금전적 여유나 감정적 여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중요하다. 일을 하고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일시	5월 17일 10: 00 장소명: 카카오 비대면 통화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정현수 2011092	○
	주인서 2231333	○
	박재민 2031006	○
	박지원 2471077	○
진도	도서명: 보바리 부인	진도페이지: 335 p. ~ 509 p.



4주차

토론 내용

주인서: 엠마가 한번도 행복한 적 없다고 말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분명 자기 삶이 심적으로 힘들다 못해 미치는 모습까지 보였던 엠마가 내게 보기엔 불륜을 저지를 땀 너무 행복해보였는데 그 초차도 엠마는 불행하다고 표현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기 마련인데 엠마한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도대체 뭐였기에 삶의 한 순간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까지하게 됐는지 엠마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정현수: 엠마가 샤를의 아버지가 남긴 농가의 낡은 집을 팔고 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엠마의 사치에 대한 욕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거 같았다 그녀의 사치에 대한 욕구와 태도가 명품을 고집하거나 과소비를 하는 등의 사치를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줬다.

박지원: 3부에서 시작하려는 부분에서 마차를 끄는 마부는 적당한 곳에 내려달라는 말에 멈춘다. 마부는 이유도 없이 계속 마차를 끄는데 레옹과 엠마의 로맨틱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마부는 고통스러워 하는 묘사가 코미디스러워서 인상깊었다.

박재민: 엠마가 결국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주제: 여러분이 느끼기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주인서: 행복이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좋아하는 음식/장소를 먹거나 방문해도 내가 심리적으로 걱정이 많고 우울하면 그것들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는 행복하다는 감정을 가져오게 된다.

정현수: 행복이란 후회가 없는 날들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행동에 후회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하는 일마다 후회없이 나아가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지원: 행복은 자신이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다. 박재민: 행복은 하루가 마무리 될 때 보람차게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간을 보람차게 쓰는 것을 느끼면 행복할거 같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정현수 2011092	<p>평소 생활을 할 때 유튜브나 동영상 위주로 나의 시간 혹은 취미생활을 하게 되는데 독서라는 건 안중에도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독서활동으로 인해 분량이 있는 책을 읽어보면서 과거 다른 나라의 생활이나 문화, 풍습 등에 대해서 “아 이거 배웠던 내용인데 오랜만이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독서가 주는 편안함과 도파민과 같은 자극적인 것 없이 내가 직접 읽겠다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도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얘기를 해보는것도 너무 좋았습니다.</p>
	2	주인서 2231333	<p>책을 혼자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읽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들과 같은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같은 책과 그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점이 나름 재미의 요소로 다가왔다. 책을 읽는 습관도 없었고 책에 흥미가 전혀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이 주는 릴스 보지 않고 책 읽기, 다양한 생각하기, 문장 읽기 연습 등 다양한 장점을 배울 수 있었다.</p>
	3	박재민 2031006	<p>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주제들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책에 대해 다양한 감상평을 들을 수 있어 책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p>
	4	박지원 2471077	<p>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각자가 다른 부분을 인상깊다고 느끼는 점이 특별했다. 각자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 책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 생각했다. 책에 단순히 메모를 하며 읽는 것을 넘어 나의 감상을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생각했다.</p>
	5		